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호 [루게 제 24416호] 주제 103 (2014)년 1월 3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선군조선의 기적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최단기간에 일떠세운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위훈

조국청사에 건설의 최전성기로 길이 빛날 력사적인 주제 102(2013)년이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는 때에 완공된 마식령스키장 개장이 진행되어 온 나라를 울렸던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마식령지구의 명당자리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이 훌륭히 꾸려졌으로써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이 사회주의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가 마련되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도 떠돌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의 영웅적군인건설자들이 남들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 수 없는 방대한 스키장건설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함으로써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장엄한 진군속도인 《마식령속도》가 창조되었다.

《마식령속도》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강성국가건설속도로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웅대한 목표와 기준, 전진속도를 규정해주고 년대를 이어 력사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

당의 부름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군인건설자들은 고결한 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으로 그 수와 연장같이 있어서 세계적인 10개의 스키장과 산골짜기에 어울리는 호텔과 스키보사 및 숙소건물, 여러 로선의 사도와 눈포설시설을 포함한 방대한 규모의 스키장건설을 빠른 기간에 끝내는 혁명적 위훈을 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애국의 호소문에 화답하여 천연산지에 거대한 스키장건설한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위훈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시대의 맨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백두산혁명군인의 비장한 혁명적의지와 실천력을 온 세상에 파시한 력사의 기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마식령스키장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다.》

마식령스키장건설은 우리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최단기간에 일떠세우기 위한 대자연조건투쟁이다.

총부지전적이 1,400여정보에 달하는 방대한 명령에서 벌어진 스키장건설은 우리 나라에서 한해 강수량이 가장 많은 동해안지구의 해양성기후와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지대의 불리한 공사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등 많은 난관을 동반하였다.

스키주르가 시작되는 대화봉정점에서 골짜기의 결속지점까지 수직높이차는 수백m

로서 주르형성에 현대적인 기계수단을 리용하기가 어려웠다.

산세협한 지형에 형성해야 할 스키주르들의 길이는 평균 1,700m, 최고 5,000m이상이었다. 하나의 스키주르를 닦으려면 평균 2만여㎡에 달하는 방대한 흙과 암반을 처리해야 하였다.

대화봉정점에 일떠서는 휴식장까지 닦아야 할 도로길이는 4천 수백m에 달했으며 이 구간에 크고작은 굽이는 120여개, 최고경사도는 22%나 되었다.

스키장지구에 일떠세울 건축물공사도 방대하였다. 결속지점주변에 있는 호텔과 숙소, 지하주차장과 종합원삼림집, 대화봉의 휴식장을 포함한 규모가 큰 건물들의 연건축면적만 하여도 5만여㎡에 달하였다.

이밖에도 30여개의 보조건물과 곳곳에 형성해야 할 40여개의 각종 시설물에는 지수능력이 큰 눈포설수지들도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사량이 그처럼 방대한 스키장건설을 선군혁명의 주력군이며 기수인 인민군대에서 맡아하도록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인민군대에 통째로 맡겨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에는 당정책에 대한 절대불변의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들인 영웅적장병들만이 그처럼 방대하고 전례없는 대건설전투를 최단기간에 해제될 수 있다는 크나큰 기세가 담겨져있었다.

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전역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다.

그들은 세계적인 스키장을 단숨에 일떠세울 기세로 배낭을 벗어놓고 바쁘게 착공의 첫발을 뒀다.

건설지휘부에서는 방대한 건설을 전격적으로, 립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주도세밀하게 세우고 공사과제를 대상별, 단계별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서 10개의 스키주르타기는 주타적전선이었다.

한적하던 산밭들에서 천연암반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막돌과 흙이 담긴 마대를 메고 달리는 전투원들속에 군관과 병사가 따로 없었다. 백병전을 방불케 한 나날에 한 교대에 10회이상의 발파가 진행되었다.

자재로 만든 수백개의 썰매발자를 리용하여 부대별로 매일 1,000여㎡씩의 흙과 막돌을 처리하였다. 결과 3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화봉의 산밭들에 스키주르들이 뻗어내렸다.

감격도 새로운 지난해 5월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수십만㎡의 면적에 초중급스키주르와 고급스키주르들을 닦아놓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이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 손수 한자한자 쓰신 력사적인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보내주신 애국의 호소문은 인민군장병들이 스키장건설을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내밀어 완공의 날을 앞당겨올수 있게 한 위훈창조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은 건설장에 력사적인 호소문에서 제시된 총공격전, 총결사전의 구호를 승리의 포대, 위훈의 기치로 빛내여갈 불변의 의지가 되어버렸다.

군인건설자들은 전화의 나날에 불타는 고지의 영웅전사들처럼 피끓는 심장의 결의를 담은 명세문에 자기들의 이름을 한자한자 새기었다.

화산정적사업이 공세적으로 벌어졌다. 지휘관들은 시간과 장소가 따로없이 싸우는 군대만이 나게 화산정적사업의 도수를 높였다.

조선인민군 서극속부대의 정치일꾼들은 모든 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령군사규범에 전진의 속도를 맞추도록 방송선전차와 지휘용승용차에 전투속도와 경정도표판을 싣고 현장을 오가며 전투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서로 다른 형식의 기동에출진동원들이 지하주차장과 지상건물내부에서, 해발고도가 높은 산장에서 벌어졌다. 전투의 여가시간에 진행된 폴리리합투와 방송선동경연, 소모 및 시작용량작전과 운병경연도 활기를 띠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의 애국의 호소에 즉시 호응해나선 총진격의 퇴성은 모든 공사장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높이선 일정목표수행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전반적인 공사속도가 1.6배, 최고 2배이상 올랐다.

군인건설자들은 당이 반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혁명군대의 기상을 떨치며 영웅적투쟁을 벌여 지난해 6월말까지 마식령지구의 모든 스키주르타기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스키주르타기가 결속됨에 따라 큰 규모의 휴식장과 다리를, 각종 시설물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

대화봉휴식장공사는 스키장의 전반건설속도를 좌우하는 주타적대상이었다.

해발 1,360여m에 달하는 대화봉에서 불리한 지형 및 기후조건을 극복하면서 발붙이지조차 힘든 봉우리에 휴식장터전을 닦기 위한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수층이자 공사실적이었다. 명길의 가파로운 구간들에 자동차운전사들을 고루추동하는 글발들이 수없이 나돌았다.

조선인민군 오후주수속부대의 중량급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골짜기에서부터 대화봉까지 왕복 200리길을 하루 8회이상

오가면서 도합 수천의 물동을 지체없이 실어날랐다.

지난해 7월, 쏟아져내리는 폭우로 하여 자동차가 경사급한 명길로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조성되자 온 공사장의 군인건설자들은 대화봉에로의 골짜운반전투에 떨쳐나섰다. 방송선전차 방송원들과 간호원들, 건설장에 달려와 작시일을 맡아하던 군인가족들도 운반대에 뛰어 들었다.

이날 마식령의 결사관철투사들은 비탈진 산밭을 타고 단 2시간동안에 120여㎡의 골짜를 운반하여 대화봉의 휴식장건설을 중단없이 추진하였다.

한편 휴식장시공을 맡은 조선인민군 신기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명마루에 제재기와 철근가공장을 차려놓고 30여개의 건물기동공구리틀기를 20여일만에 끝내고 공사상과를 계속 확대하였다. 휴식장건설기간 연 8,000여대의 버림목과 10여의 철근, 80여의 공사용물을 운반하면서 돌격전을 벌였다. 연건축면적이 1,700㎡인 휴식장건설의 나날에 대화봉의 해발고는 무려 8m나 낮아졌다.

포성없는 격전은 스키주르에 인공눈을 형성하는데 리용된 눈포설수지들과 연장길이가 1만 2,000m나 되는 눈포판로 굴착전투장에서도 파란이 벌어졌다. 군인건설자들은 립잡한 도로도 없는 저수지건설장까지의 500여m나 되는 비탈길주변에 신념의 표어들을 새겨넣고 드센 함마력으로 저수지바닥과 호안정리를 위한 3,000여㎡의 토랑처리와 수백㎡의 돌쌓기를 립체적으로 벌려 2개월동안에 해야 할 공사과제를 보름이상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해발고도는 산장에서 휴식장과 눈포설수지공사가 적극 추진될 때 산밭에서는 공공건물과 각종 시설물, 지대정리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호텔 및 숙소건설을 맡은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100여리밖에서 세멘트와 골재를 비롯한 자재를 짐승수송하면서 연건축면적이 2만㎡가 넘는 10층이상의 호텔건물을 평균 이틀에 한층, 최고 30여시간에 한층씩 쌓아올렸다. 골조공사를 예정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끝낸 이들은 외부미장도 10여일동안에 결속하는 혁신의 개가를 울리었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3개월은 실히 걸려야 할 드넓은 지하주차장의 총막공구리틀기를 보름동안에, 다리공사는 단 4일동안에 추진하였다. 조선인민군 오병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아지형공법을 적용하여 200m 구간의 암거공사를 20일동안에 해제했다.

선군시대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로 내달린 군인건설자들에 의해 마식령지구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6월사이 20여개의 건물골조공사가 완공되고 7월말에는

60여개의 건물 및 시설물들이 자재를 드러내놓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마식령지구에서의 건설성과는 속도일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진동식모래제와 이동식혼합기, 진동다짐기를 비롯한 21종에 210여점의 건설기계와 합리적인 지구 및 기공구를 만들어 공사에 리용한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를 비롯하여 모든 시공단위들에서는 최를 고정지주와 흐름식혼합물운반기 등 많은 건설기술수단을 창안도입함으로써 모든 건설물을 천년보존, 만년담보의 창조물로 완성하였다.

호텔과 스키보사 및 숙소건물을 비롯한 큰 규모의 스키경기 및 운영시설들이 산밭환경과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특색있게 꾸려졌다.

군인건설자들은 겨울철에 들어와 눈이 많이 온 불리한 조건에서도 대형썰매, 중소형 썰매들을 수십개나 만들어 중량이 천수백t이나 되는 사도설비들을 불도젤로 끌어올림으로써 긴장한 조립기일을 보장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직송기착륙장과 스케트보사건물, 스키주르감시소와 길이 600여m로부터 2,000m에 달하는 여러 로선의 사도와 눈포설공사도 완공되어 세계적인 스키장으로서의 체도가 훌륭히 갖추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온 나라 인민들의 성의있는 원호는 《마식령속도》창조투쟁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조국청사에 특기할 마식령지구의 천지개벽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명운에 사회주의 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고결한 헌신의 세계가 안아온 결실이다.

마식령스키장이 완공됨으로써 사회주의 문명국을 향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리상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있고 세인을 놀라우게 하는 내 조국의 기상이 어떻게 나래치고있는가를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마식령스키장은 규모가 큰 단순한 대상 건설이 아니었다.

미제를 비롯한 원수들의 온갖 도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지난해 정초부터 전쟁의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적자가 총부리를 겨눈 최전선도 아닌 마식령지구에서 울린 스키장건설의 장엄한 포성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리상과 담력이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파시한 또 하나의 장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세협한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어 군인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공사를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낼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건설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동안 마식령지구 천지개벽되었다고 커다란 고무도 안겨

주시고 스키장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하여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보고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이 마식령스키장 완공을 기다린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인민군대에 의하여 《마식령속도》라는 새로운 시대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은 모두가 애국자들과요, 그들이 세운 위훈은 부강조국건설력사에 길이 남을것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지구를 찾으신 때마다 모든 건설대상을 지역적특성이 살아나고 선 편리성, 후 미화성의 원칙에서 손색없이 꾸러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어 설계의 표준, 시공의 본보기로 되게 해주시였다.

마식령스키장이 웅건한 자재를 드러냈을 때는 마음껏 주르를 지척내리며 웃고 떠들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호호해진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청소년학생들이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와 스케트, 썰매도 타면서 겨울철야영을 할수 있게 수백명규모의 숙소 및 봉사시설을 더 건설할때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정령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군인건설자들의 의해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은 그처럼 력사에 류례없는 빠른 속도로 손색없이 완공될수 있었다.

인민군대를 《마식령속도》창조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에 군인건설자들은 세계적인 스키장을 짧은 기간에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었다.

오랜 세월 새소리와 물소리만이 들리던 마식령지구에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거창한 창조물이 일떠세움으로써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첩령이 있고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된 강원방의 마식령은 무궁명영하는 김정은시대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력사의 봉우리로 빛나게 되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은 마식령스키장의 완공과 더불어 로동당시대 건설의 최전성기를 빛내인 크나큰 공지에 넘쳐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이 땅에서 모든 꿈이 현실로 펼쳐질 조국번영의 패일을 더욱 확신하고있다.

마식령스키장의 완공으로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나는 지난해를 더욱 뜻깊게 장식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건설의 대번영기를 띠이 펼쳐나가기 위한 공격전에 드센 박차를 가하여 변명하는 사회주의문명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진수
본사기자 지원철



세계일류급으로 훌륭히 일떠선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 마식령스키장에 행복의 웃음이 넘쳐난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청춘조국송가

축복받은 선조조국의 대지 위에 세계의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내고 새로운 희망과 원대한 포부를 가슴 들끓는 이 뜻깊은 시각 우리모두는 함흥성공화국기 창공에 펄펄 휘날리는 내 조국의 존엄 높고 자랑스러운 위용을 삼가 우리른다.
너무도 몰라보게 달라졌고 너무도 눈부시게 비약하는 우리 조국이다. 분명 그 땅, 그 하늘, 그 사람들이지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르며 매일은 무슨 사변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젊어지고 솟구치는 내 조국이다.

평범한 연구사, 교원들을 하늘높이 떠올린 과학자이자, 교육자살림집들에서 새해를 맞는 격경과 흥분이 해빛같은 창문머리 뜨겁게 넘쳐난다. 현대적전축미를 자랑하는 문수물놀이장과 말발굽소리 경쾌한 최상수준의 미림음악극장 등 각종 체육문화시설들에서 젊음을 즐기며 뿔어올리는 낭만적인 웃음소리가 한겨울의 추위마저 녹인다.
발걸음은 꽃마다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요, 듣는 소리가 사민주주의의 명령을 구가하는 기쁨인데 설날그믐날에는 이 하늘아래 눈부리 아득하게 펼쳐진 마시령스키장 개장식까지 펼쳐져 세상을 다시 한번 깜짝 놀래웠으니 이 아닌 기적인가.
말 그대로 약동하는 젊음이 하늘에 닿고 넘치는 힘과 기상으로 무겁게 일어서는 선군의 내 조국을 다름아닌 청춘조국이라고 오늘 우리는 당당히 말한다.

청춘이여, 너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청춘을 사랑하는가.
청춘을 불러 정의와 진리의 상징이라 한다. 청춘은 사나운 폭풍도 헤쳐는 용맹의 나래라고 노래한다.
그 어떤 광풍도 길들이고 온갖 유혹도 단호히 불살라버리는 자랑높은 기상은 청춘의 가슴에서 더욱 솟아올라온다.
사랑과 열정, 용감성과 패기가 피어넘는 가슴에 넘치며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 왕성한 힘으로 천리 날바다도 단숨에 메우고 이룩한 산도 통째로 떠올리는 무서운것없는 시절이 다름아닌 청춘이다.
미치지 못한 삶을 싫어하고 안전한 생활을 중요하며 순간마다 새로운것을 열망하여 높이 날아오르는 그 자태는 얼마나 믿음직하고 아름다운가.
청춘은 아름답다 한다. 새벽노을처럼 붉고 순결무구하며 찬란한 리상과 기상으로 무한대한 미래를 펼쳐는 청춘, 그들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오늘이 아니라 매일이

다. 잠을 자도 꿈을 꾸어도 오늘보다 더 좋은 매일을 그리며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위해 고난과 시련도 두려움없이 헤쳐간다.
청춘이 있어 세상이 달라지고 젊음이 있어 력사는 더욱 힘차게 출달된다.
바로 이런 젊음의 약동, 위엄만이 솟구치는 거대한 활력이 오늘 내 조국명을 떠받치고 이끌어가고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부푼한 긍지인가.
보라. 옛 사람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다지만 한두세대에 10년, 100년을 주름잡고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이루는 우리 나라이다.

우리 조국은 해를 두고 년차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당, 시간당으로, 초고속으로 우주속도로 시공간을 압축하며 다차원적으로 전진되고있으니 그 후과 심도를 과연 무엇으로 짚수 있겠는가.
참으로 수백수천년 땅속에서 뿔던 용암의 분출인양 다지고 다져온 우리 힘의 총체가 무겁게 용을 쓰며 폭발하고있다.
용솟음치는 젊음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기세, 이런 열정을 뿔어낼수 있겠는가.
청춘의 순결한 낮과 지혜, 거대한 정열이 천만군민의 정신과 신념으로 승화되고 젊음이 발산하는 무한대한 힘이 강성국가건설의 활력소로 되고있는 선군조선의 놀라운 비약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고무움과 격동의 정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삼가 우리른다.
아버지장군님을 천만투박에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인민을 그 넓은 가슴에 품어안시고 따뜻한 정과 산악같은 신념, 불굴의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건적이 어려웠던 크나큰 슬픔과 비애의 언덕에서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으로 숨어들어 버린 우리의 최고영도자께서 지니신 젊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가를 지금 우리는 무한대한 격정속에 체험하고 있다.
그이의 불타는 젊음과 더불어 우리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장장 수십년세월 청춘의 기상과 넋으로 역사를 전진시키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온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맥맥히 이어졌다.
그대가 누구이든 우리 조국의 성스러운 년대기에 새겨진 청춘이란 고귀한 이름앞에, 그 영광스러운 전통에 삼가 머리아우자.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여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개척해오셨다.
당국의 비유에 삼천리강토우에 무겁게 드리웠던 수난의 그 세월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신 력사의 시각과 함께 우리 수령님의 청춘시절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안도의 밀밭속에서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실 때 당던 20세의 청년장군이시였음을 새삼스럽게 돌이켜보게 된다. 수령님께서 애국애족의 넋으로 청춘시절을 뜨겁게 불태우시며 항일의 전장에 서기신 피어린 자욱자욱을 떠받들러 마침내 조국해방의 새 아침은 찬연히 밝아왔다.
이때의 압박밑에서 수난받는 식민지민족의 용맹을 구원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너무도 젊으신 30대의 청년장군이심을 우려하며 된 우리 겨레는 사무치는 경모의 정을 누르지 못해 이렇게 심장으로 노래하였다.

...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
만고풍상 혈전혈투의 과거가 그렇고 오매불망된 재건조국의 오늘은 더욱!
...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아아, 삼천리 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명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젊음에 눌리는 고귀한 심장으로 력사의 폭풍우를 과감히 헤치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추동하여온 영광스러운 전통은 대를 이어 변함이 없었으니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벌써 혁명의 총대를 게우봉으로 넘겨받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선 안도의 수령님께서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시던 수령님처럼 젊음에 넘치시는 장군의 모습으로 선군령도의 첫 부름을 찍으셨다.
105땅조사를 찾으시여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철철의 신념으로 우리 군대를 철두철미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백승을 떨쳐갈 불같은 선언을 하시고 어은동의 높고 험한 산밭을 타시며 백두산천출명장의 위용을 펼친 그 력사의 화폭들이 우리 장군님의 청춘시절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이 땅에서 조선을 책임질 주인이 되리라

는 원대한 포부와 리상으로 젊음을 잃어시며 안락의 원수들에게 단호한 철추를 내리고 주체위업의 명맥을 쫓듯이 지켜내신 천출위업의 모습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잊지 못한다.
무로의 낚시터에서 무르익히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키며 전방, 전군에 수령님의 유일 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신 력사적공적도 아버지장군님께서 청춘시절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다.
꺼질 줄 모르는 당중앙장가의 밝은 불빛과 더불어 수많은 혁명전설을 아로새기신 아버지장군님의 열정에 넘치고 함께 할 때에서는 로동당시대의 통성변영기가 펼쳐졌다.

참으로 청춘이라는 신성한 부름을 떼어 놓고 우리 혁명의 개척과 전진, 승리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운 영웅들의 군상을 잠시 새겨보자.
...
그 앞잡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총직하게 받들어 조선혁명의 련명기를 헤쳐온 1세대 청년혁명가들이 있다. 아직 년소하신 우리 수령님께 삼가 태양의 존함을 드리며 순결한 광명과 의리로 받들고 억년 드느니 않는 일심단결의 초석을 마련한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은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았던 새 세대 청춘들이었다.
이 땅에서 건강, 건국, 건군의 대업을 굳건히 떠맡은 기동들도 20대, 30대의 열혈청년들이고 가말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복속 기꺼이 비쳐 인민공화국의 영원무궁한 패일을 지켜낸 영웅전사들도 꽃이나 청춘들이고 우리 당의 선군위업을 제일선에서 믿음직하게 받들어온 총직한 영웅사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었다.
참으로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조선의 청춘이기에 우리 수령님께서선 희고록 《새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패기도 루지도 광망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리상을 높이 세우고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반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생신한 사상과 결실한 육체를 가진 청춘들이 교와 결을 버서 가지고 이룩해내는 모든 열매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 재부를 이루어놓은 주인공

들에 대하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것이다.》
그 출중한 인품과 기백도, 천리헤인의 예지와 불길처럼 타오르는 열정도 항일전의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과 빨찌산의 아들인 위대한 장군님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께서 지니신 젊음이 그토록 위대한것은 그 열혈의 심장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품으시고 바쳐오셨던 뜨거운 사랑과 열정, 불같은 헌신이 그대로 깃들어있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워주신 조국,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중히 품어안아 지켜주시고 빛내주신 내 조국을 김정일애국주의의 승고한 뜻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가꾸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이다. 심장속에 품으신 순결한 정과 사랑을 고스란히 인민에게 부여주시며 인민들이 만복을 누리며 그날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바치시고 불태우시는 우리 아버지이다.
지금 이 시각도 그이께서는 영원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선군조국, 온 나라 인민이 세상 부러울것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회주의대화인, 인류의 제일리상함을 이 땅위에 일떠세우실 승고한 꿈을 안으시고 불철주야 강행군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데는 아니던가.

오늘 원수님께서 우리모두에게 안겨주시는 젊음속에는 새로운과 찬신함, 대담성과 열정, 창조와 혁신 이 모든것이 다 담겨있다.
김정은시대에는 모든것이 새롭고 그 수준은 세계 최상의것으로 창조되고있다.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만복이란 없고 한계도 없다.
하여 그이께서는 하나의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어, 하나의 설계도를 보시고 하나의 전족을 일떠세워주 기성 자태와 판넬, 타성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새로운 식견으로 보시고 작정하시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앞서나가도록 이끌어주신다.
오늘 이 땅위에 펼쳐지는 전면적인 문명개화기는 단숨히 지나온 년대들의 계속과 련속이 아니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도약이고 원수님시대의 폭발적분출이다. 젊음은 투철한 정의이고 무진막강한 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하여 원수들이 그

처럼 전철하고 두려워하는것도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그 젊음에 있다.
원수가 칼을 빼들던 장경을, 총을 내대던 대포를, 핵무기를 휘두르던 그보다 더한 핵억력력으로 원수들의 머리에 단호한 철추를 내리고 조국통일위업의 력사적승리를 안아오려는것이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우리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백두의 천출위업의 출중한 지략과 단력, 용맹과 배짱을 그대로 겸비하신 그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설자가 이 세상에 없다.
숫아오르는 아침의 태양과 같이 온 누리를 환히 밝히는 저 창공의 광채를 과연 누가 가리울수 있겠는가.
젊은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오늘도 위대하지만 매일은 더 눈부실것이다.
조선이 낳은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청년장군 김정은원수님을 당할자 그 누구나, 우리에 대해 허쉬는 망상을 하는자들, 우리를 침노하려는 원수들이 혀여날수 없는 파멸적재난을 당하지 않겠거든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조국의 힘과 기상을 똑바로 보고 경경당동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불타는 젊음속에 세상을 놀래우 는 원수함이 있고 품고계신 만가지 아름다운 꿈속에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는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김정은동지!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리상이 더욱 높아지고 승리의 신심이 배배해졌다. 뿌리가 든든하고 가지가 왕성하며 줄기차게 뻗어오르는 거목은 그 무성한 새 손과 함께 더욱 역세게 성장하기마련이다. 우리의 청춘조국도 바로 이런 거목과 같다. 준엄한 세월의 년대기들에 혁명시절을 이 바친 고귀한 피가 스며있고 그들이 넘겨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발을 미래의 리상을 향해 더욱 높이 추켜들고 청춘의 열정과 힘으로 나래부리는 우리 조국이다. 회세의 천출 위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어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나라, 창공에는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가 무궁도록 휘날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소년과 소녀가 이루어지게 될 사랑하는 우리의 청춘조국! 이 매력적이고 역세며 자랑스러운 청춘조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 휘황찬란한 설계도따라 새해의 더 큰 승리를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김 성 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하르툼 수단 공화국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각하
나는 수단독립 58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호상 이익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3(2014)년 1월 1일 평 양

리말리츠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
마흐무드 아 빠스각하
나는 팔레스티나혁명명사 4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전우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자결권과 귀국의 권리, 독립국가창설권을 포함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관대성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3(2014)년 1월 1일 평 양



내 조국에 넘쳐난 미려함을 내다보며 승리의 신심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가고있는 시각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신 22돐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불패의 보루로 빛내여주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교미움과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력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길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주제 81(1992)년 1월 3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진로를 명시한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임이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리상이고 미래이다. 사회주의의 전진도상에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지만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사회주의가 인간의 지향이고 의지인것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력사의 필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로작에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인인을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량을 높일데 대한 문제, 혁명적 건설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인민들에게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 주는 고귀적기초로 된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의의깊은 행진이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이 후호의 용이나 탈선도 없이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라 꽃피어 열매를 맺는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계급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국침략행동과 억혹한 시련속에서도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에 넘쳐 영웅적투쟁을 벌여나가는 우리 인민의 역설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신 사회주의 조선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언한 사실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 시대적환경과 혁명투쟁의 조건도 많이 변화했지만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오늘도 변함없이 승승장구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필승불패의 위력을 떨쳐나가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자주성, 민족적 백승을 떨쳐나가는 무적의 우세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온갖 지배와 억울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그러므로 절절한 자주정신을 지니고 자주성의 원칙을 고수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승격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언제나 근본문제로 나타난다. 자주성의 원칙을 헤버리고 남의 식, 남의 품을 따르게 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 막게 된다는것이 사회주의운동력사가 널리 신성한 교훈이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당과 수령이 펼쳐준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역설 기상은 오늘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우리 조국이 지닌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준엄도,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의 위용도 절절한 자주적대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굳센 자주정신으로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할 소리를 다하고있으며 무슨 문제나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고있다. 미래의 약탈한 정적군사적위협과 제체분쇄세력도, 력사의 온갖 반동들의 회유와 압력도 우리의 강인담대한 배짱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당명과 기상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 대로 혁명적 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자주의 길로 드림없이 나아가고있다. 민족자주를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확고한 림장, 한번 결심한 문제는 천만시원이 막아나서도 끄떡없이 밀고나가는 드세 배짱, 격동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는 대담한 공격정신,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 품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누구도 범할수없는 견도필수없는 영원한 자주성의 생명이 있고 위력이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보루이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하나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일심단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의 생명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일심단결, 수령과 인민의 땀에 젖은 몸이 없는 철연적연대속에서 승승장구하여온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이다. 인민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승고한 동지적 사랑과 헌신으로 온 사회를 하나의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면시키신 아버지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은 선군

혁명실록의 갈피마다에 뚜렷이 아로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에 걸맞은 일심단결은 더욱더 순결하고 공고한 단결로 강화 발전되고있다. 령도자는 군대와 인민을 믿고 영웅적위훈의 길로 이끌어주며 천만군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천절, 만겁의 생세를 이르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해나가고있다.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사이의 관계가 일심단결로 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모든 투쟁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되고 반제반미투쟁사에 특기할 거대한 승리를 이룩되고있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운명공동체를 이룬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 구하여온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이다.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천만군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 기풍의 일치를 빛나게 실현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세기를 이어 높이 떨쳐올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승고한 동지적 사랑과 헌신으로 온 사회를 하나의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면시키신 아버지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은 선군

위업적 품모를 가슴깊이 새기며
덕성관람 초급담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관부들속에 아버지장군님의 위업적 품모를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고있다.
일마련 어느 한 층대에 내려간 초급담당들은 작업의 휴식참을 리용하여 혁명열의 《위대한 아버지》의 동상을 모시지 못한 사연》을 가지고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자신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필생의 뜻을 이어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고 조국을 통일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야 할 력사적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다 실현하면 아직도 중대한 과업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위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수 십억의 양보다도 모르신 우리 장군님의 헌원이 겸허하신 선군정신에 대한 이야기의 관부들의 가슴을 세계적 격동시키었다.
해설모임에 참가한 관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큼도 아끼지 않으시면서도 자신께서는 그 어떤 명에도 청호도 바라지 않으신 이 세상을 가장 겸허하신분, 인류위업에 두번 다짐을 위업중의 위업인,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이시였다고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높은 석탄생선상과 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경으로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로동통신원 연 전 행

리 강 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위훈을 창조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일으켜나가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적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지금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원대한 포부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새해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경제발전의 쌍기둥을 더욱 굳건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접한 우리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지금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강철기둥을 더욱 튼튼히 세울것을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생전의 념원과 당의 의도대로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이 사업의 성과여부는 다름아닌 우리 일군들이 어떤 비장한 각오와 의지, 실천력을 지니고 오

산단위들의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고 중요금속공장들에서 수입연료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도높이 벌려나가겠다. 이와 함께 전극과 내화물의 국산화실험을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의 자원과 연료, 자재를 더 많은 철강제품 생산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금속공업상 김용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분야에 앞장서서 혁신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계에 타넘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혁신의 봉화가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데서 우리

아주기 위한 후방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겠다.

우리는 광부들의 요구와 리의를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언제나 광부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신심들이 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비약

크나큰 포부와 신심에 넘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또 다시 받아안은 우리 식료일용공업 일군들은 올해에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자신들앞에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갖가지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의 앞장서서 뛰어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는 금속공업에 보내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들이 지닌 사명감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겠다.

우리 일군들은 광부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하기 위한 화산식정지사업에 실정에 맞게 활발히 벌리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체육성의 일군들과 체육인들의 가슴속에는 지금 무한한 격정과 흥분에 휩싸여있다.

신년사에서 체육강국건설의 앞길을 더욱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우렁우렁하진 음성에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화국창건 65돐과 정승 60돐을 맞은 지난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아래는 나라를 체육열풍으로 들끓게 하고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 무대에서 공화국을 뽐낼 위대했던 못 잊을 나날들을 감지높이 되새기고있다.

뜻깊은 지난해에는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체육인들이 성과를 거둘 때마다 감동은 삶의 언덕에 울려세워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칠수 있게 한 필승의 원동력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올해의 전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신심과 락관을 굳게 가다듬고 있는 우리들이다.

우리 체육부문의 전체 일군들은 올해에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나가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지난해에 제시된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갔다. 모든 체육인들이 세계적인 패권자가 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체육과학기술에 확고히 의거하여 백두의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여 체육의 대중화방향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의 지령강령정수령을 빛나게 실현해나간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

우리는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과업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에게도 이어 세계를 디디고 올라갈 야심만만한 배낭을 가지고 우리의 시를 세우고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최첨단들과 과학기술을 힘있게 벌려 경제국과 건설국과 인민생활향상을 시회기적인 전변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지적창조물에 기초한 첨단과학기술개발의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디디고 올라갈 야심만만한 배낭을 가지고 우리의 시를 세우고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최첨단들과 과학기술을 힘있게 벌려 경제국과 건설국과 인민생활향상을 시회기적인 전변을 일으키겠다.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소장 김대세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깊이있게 학습하고 있다. -농업 과학원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영웅적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들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나라 청년들의 격정은 하늘에 닿았다.

우리 500만 청년들의 가슴마다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돌격대, 선봉대로서의 영예를 빛내어갈 신심과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지난 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세우며 혁명의 최고수위에 오르고있는가를 심장깊이 새기였다.

대를 이어 수령봉,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이 현시대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또다시 받아안은것은 영광중의 영광, 특진중의 가장 큰 특진이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청년동맹조직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조직으로 만들겠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나라가 들끓고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양성이 일어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동맹계활동, 사회주의경쟁을 광범히 벌려나가겠다.

올해의 주타격방향인 농업부문에서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의 역할을 높여 당이 제시한 일과이도를 집행하는데서 청년들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물품을 가리라, 당의 부름에! 이것은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심장에서 분출되는 애국의 웨침이다.

우리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 희생한 의욕을 가지고 일관을 통일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그리하여 당에서 통제로 맡겨준 백두산건설전선발전소 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전선투를 단숨에의 공격정진으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내일이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철적으로 끝냄으로써

선군청년전위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가 대중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청년동맹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화산식정지사업으로 대중의 정진력을 활화산처럼 폭발시켜나갈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모든 청년들이 김정일애국주의의 심장을 뛰어넘어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대의 최후대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백두의 선군영웅적위훈을 창조하시려는 조진 청년운동의 앞길을 언제나 밝고 휘황찬란하다.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도따라 승리의 신심도 높이 강성국가건설의 격진장마다에서 김일성사위주의 청년동맹기발을 펼칠 뒤죽박딴의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굳게 결의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 용 남

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전력특성에 이성이 생겨 어느 한 주면지구에 집중은 전기가 보장되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된 도당위원회책임일군은 송배전선소의 편제에 필요한 대책을 즉시에 세움으로써 불합리한 창가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자강도당위원회 일군들도 인민의 복부처럼 승고한 자각을 안고 한사람같이 뛰어나니 양력설을 보내는 인민들의 생활을 세심히 돌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과 사회공급, 러객운수, 체신, 보건을 비롯한 인민복사사업이 제대로 되는가를 자주 알아보고는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그리고 인민을 위해 일군이 있다는 승고한 자각을 안고 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뛰어나니 인민들이 명절을 즐겁게 쇠도록 온갖 사랑과 정을 기울여주었다.

명절날 당일일군은 혁신자들과 공로자, 정령보병들, 영예군인들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다 바치였다.

무산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군안의 정령보병들과 영예군인, 농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

주타격 방향의 제일 앞장에서

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은 또 다시 주타격방향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여 지난해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삶의 보람과 영예가 깊어지고 하면서 계속하여 말하였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적농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일과이도를 기어이 점령하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야 할 만큼 농업의 기본열쇠이다.

우리는 품종배치를 개선하며 영농기술과 방법을 혁신하고 우리 식의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등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작전을 과학적으로 대담하게 펼쳐나갔다.

당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로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작전을 과학적으로 대담하게 펼쳐나갔다.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작전을 과학적으로 대담하게 펼쳐나갔다.

농사구역 장천남해전면농동 조합 관리위원장 김명연은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

우성으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

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농사에서 풍작을 불러 내는 데에 전진군을 앞세웠다.

통천군 인삼협동농장 제2작업반 3분조장 정영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보니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넘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맹세하였다.

사회주의 농촌문명에 관한 테세발표 5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최고수확량 수준을 주요건 돌파하자, 바로 이런 결사의 각오로 분조원들의 심장속에 역활이 자리잡고있다.

우리는 사생활간의 각오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해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다시한번 폭풍처럼 내달림으로써 기어이 영예로운 승리가 되겠다.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제3작업반 농장원 리재원은 새해의 첫 아침, 우렁우렁하진 음성으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

명절날에 새겨진 당일군들의 발자욱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각지 당일군들이 새해 첫 자욱을 의의깊게 새겼다. 중산의 동을 높이 울리고 있는 로동계급과 명절을 즐겁게 쇠고있는 근로자들, 영예군인, 정령보병, 공로자, 혁신자들을 찾아 견고결은 당일군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위하여!》** 라는 구호에는 전담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꼭 담겨져있 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현수공정을 맡은 단위들이 나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도 안겨주고 일도 함께 하면서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남포시당위원회 일군들은 천리마강원연합기업소, 보산철소를 비롯한 시안의 중요전투단위들에 나가 신년사에 담겨진 사상과 진수를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었다.

혁신자가정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맞게 그들이 명절을 더 즐겁게 쇠도록 하는데서 놓친 문제를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토의한 후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잘 짜고 들었다.

점리평원연합기업소와 단천제련소의 당일군들은 지난해 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혁신자들에게 양력설을 맞으며 풍성한 식사를 마련했다. 개구리 원심을 닦아내며, 매 주위까지의 성까지 알아보면서 한가지라도 더 구미에 맞는 음식을 놓아주기 위해 바친 당일군들의 뜨거운 지성은 끝이 없었다.

구내의 영양제식당마다에 풍성한 식사를 마련한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어온 흥분과 격정을 금치 못하는 혁신자들에게 자기들의 손으로 축배도 부어주면서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주었다.

수판산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당일군들도 구내의 영양제식당에서 혁신자들과 근로자들을 위해 풍성한 식사를 마련해주고 로동계급의 새해결의도 들으면서 명절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었다.

농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

군들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전쟁터별들과 영예군인들, 혁신자정들과 함께 어려운 세대의 가정들을 찾아 헌신의 자욱을 남겼습니다.

새해 첫 아침 단천시 쌍룡리 17인민반에 살고있는 특유영예군인 조창호동무의 가정은 찾은 쌍룡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성의껏 마련한 물자도 안겨주며 명절의 한때를 즐겁게 보냈다.

쌍룡리당위원회 일군들이 아니었다. 전국의 모든 농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농민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며 새해 정초부터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첫 자욱을 새기였다.

양력설을 맞으며 전국각지에 울려 퍼진 당일군들의 헌신적투쟁의 발자욱소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떨쳐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온 나라를 휘젓는 대가령으로 만드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졌다.

본사기자 최영길

각지 수송선사들 첫날 수송계획 넘쳐 수행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수송선사들이 뜻깊은 올해를 높은 중성성과 빛나는 일년일고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영웅적전군의 면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이들 혁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철도수송선 첫날 수송계획이 104.8%로 수행되었다.

올해의 경제발전을 추동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몫을 맡은 책임감을 깊이 자각한 성의 일군들은 대고전설장들에 필요한 물동들을 힘있게 실어 나르기 위한 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수송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평양철도국 수송선사들이 수송능력을 높여 강성국가건설에 기여할 한마음일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절세위인의 따뜻한 축복속에 온 나라에 넘치는 환희와 랑만

어디가나 행복의 웃음꽃 바다

새해가 밝아온 이 땅에 기쁨과 환희, 희망과 랑만이 한껏 넘쳐난다.

수도 평양을 비롯한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마다 명절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의 물결이 가득히 넘쳐흐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서 제일 기쁘고 제일 자랑스럽게 이 땅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현하 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 세울것입니다.》

우리의 새해는 어떻게 밝아왔는가.

주제 103(2014)년 1월 1일 0시,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흥취찬 화광이 내 조국의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수도의 곳곳마다에서 명절의 한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의 격정의 환호소리, 감격의 만세소리가 하늘을 진감시켰다.

뜻깊은 한해를 보내고 커다란 포부와 신심, 락판과 확신속에 맞이하는 새해에서 경축의 축포를 바라보는 천만민들의 심정이 그러도 뜨겁고 환희로운것 아니던가.

터져오르는 축포의 제광에 휩

싸여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한없이 경건한 마음을 안고 끝없이 흐르고있었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절절한 그리움과 흥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축성한 모습, 이렇게 밝아온 새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보내시는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더욱 뜻깊고 즐겁게 흐르고있다.

다채로운 명절맞이풍경, 흥성이는 명절분위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있다.

평양과 지방의 극장, 문화회관에서 경축공연무대가 펼쳐졌다.

동양양극장, 모란봉극장, 평양교예극장 등 수도의 여러 극장들과 함흥극장을 비롯한 지방의 극장,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은 원대한 포부와 최후승리를 위한 확신을 안고 명절을 즐기는 우리 인민에게 새 힘과 용기, 기쁨과 랑만을 안겨주었다.

전국각지의 이르는 곳곳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웃음꽃이 연피어기, 제기차기를 비롯하여 민속놀이를 진행하며 새해의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키고있다. 보다 밝고 창창할 내 조국의 미래를 상징하듯 《강성조선》, 《사회주의문명》, 《행복》이라는 글씨가 씌어진 각종 각색의 연등이 맑고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날아오른다.

전국의 금양봉사망들에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는 또 얼마나 즐겁고 가슴뜨겁고한것인가.

새해를 맞이한 이 땅에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꽃피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준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수도 시민들이 명절을 더 즐겁게 쇠도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에도 시안의 여러 금양봉사망들에서 시민들을 위한 특색있는 명절음식봉사를 하도록 하여주시는 조치를 취해 주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 주신 은정어린 조치에 접한 우리 봉사망장들과 금양봉사망의 봉사자들은 손수지는 격정적 감사의 정을 글씨 못하여 수도시민들에게 배풀어지는 당의 사랑이

세계적수준의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룡라인민유원지의 룡라공예도관을 비롯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수도의 대중봉사망들은 물론 도소재지와 시, 군들에 꾸려진 공원과 유원지, 로라스케트장마당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즐거운 노래소리, 유쾌한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있다.

명절의 밤은 반대로 이채로웠다.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 도시들에 펼쳐진 화려한 불야경과 갖가지 축등과 장식물들로 단장되고 불꽃은 창가마다에 행복이 한껏 무르익는 거리와 마을을... 명절의 한밤이 깊어갈수록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흥모의 정으로 잠 못 드는 우리 인민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새해에도 더 많은 일을 하여 강성부흥의 위대한 패를 앞당겨올 불타는 맹세와 각오, 아름다운 생활의 랑만을 안고 새해가 밝아온 이 땅에 즐겁고 보람찬 명절의 나날이 뜻깊게 흘러가고있다.

본사기자 리남호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은정속에 각지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명절을 즐겁게 쇠고있다.

수도 평양과 지방의 금양봉사망들에서는 특색있는 명절음식봉사를 위한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 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품을 들여 마련해 주신 선물들인 밀떡들이 온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사랑하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기에서는 밀떡과 파배기, 군반, 군고구마, 송사탕, 차 등 여러가지 봉사를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지방의 금양봉사망에서도 인민들의 기쁨이 한껏 넘쳐나고 있다.

경양각을 비롯한 사리원시의 금양봉사망들에서는 평고기 국수와 평고기온반을 비롯한

특색있는 음식을 봉사하여 명절분위기를 돋구어주고있으며 회평판과 내포국집, 토끼고기 전문식당, 강냉이전문식당, 짜장면집, 전골집, 온반집을 비롯한 회평시의 금양봉사망들에서도 다채로운 명절음식봉사를 진행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평성면육과 은덕밀국수집, 역전제거리식당, 문덕특산물식당, 신양특산물식당을 비롯한 평성시의 금양봉사망들에서도 성의있는 명절음식봉사로 근로자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의 북편 철의 도시와 동해안의 공업도시, 항구문화도시를 비롯하여 온 나라의 도시와 마을마다에서 성의있는 명절음식봉사로 인민들의 기쁨이 끝없이 꽃피고있다.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은정이 어린 봉사를 받으며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친근한 아버지로 높이 모신 끝없는 행복과 긍지를 다스릴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으며 부강조선건설을 위한 새해의 보람찬 전진에서 또다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 나갈 굳은 결의로 총망미되어 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흥겨운 민속놀이로 새해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모란봉극장에서— 본사기자 리진혁 찍음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을 어떠한 모신 사회적대가정은 수령과 혈연적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가장 화목하고 단합된 혁명적인 대가정이며 혁명적대가정의 매성원들은 수령의 참된 아들딸들입니다.》

새해의 아침 우리는 창천거리의 만수동 1인민반 3층 1호에서 사는 심동수 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집주인들인 심동수, 한은순 부부가 우레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명절을 함께 쇠자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있습니다.》

교육자가 찾아오니 그럴만도 하였다. 새해를 맞으며 집안의 웃사람들은 물론 마을의 웃이른들, 스승들을 찾아 새해를 하는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적 습관이었다. 그러나 새해의 아침 심동수동무의 집을 찾은것은 제자형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더니 이웃들이 들어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년간 집에서 명절을 쇠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알고보니 그들은 지난해 양력명절에도 이 가정에서 보내며 우리 마음을 후덕히워했다.

우리는 심동수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살림방들을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깃든 텔레비전수상기며 《세계명작동화집》...

부엌에서는 만발 심선영동무

심동수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세계포장을 수여받은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으로 손주들이 태어나면 주라고 이르시며 안겨주신 《세계명작동화집》의 주인들이 태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심동수, 한은순 부부는 수많은 제자들을 훌륭히 키우 사회에 보탬이 내세웠다. 이때 동맹원구역당위원회와 일꾼들이 방에 들어왔다. 그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년간 집에서 명절을 쇠고싶어 찾아온것이었다.

불현듯 심혜영동무가 하던 말이 들려왔다.

《맞춤 보금자리!》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고향에도 그 품에 안기고싶어하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에서도 가슴후뼀에 느낄수 있었다.

어제 이 가정뿐이라. 온 나라 가정들에 이렇듯 절절한 그리움이 넘쳐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권 우리 인민의 생활은 올해에도 얼마나 번창하고 아름다울것인가.

본사기자 리경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찬란한 미래를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를 굽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기쁨은 수도의 금양봉사망들에도 가득히 넘쳐흐른다.

세상에 이롭던 평양의 옥류관, 청류관을 비롯하여 인민의 행복번천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는 금양봉사망들이 없어야 즐거운 새해맞이풍경을 어찌 이야기 할수 있겠나.

지난 1일 우리가 명절봉사로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풍입니다.》

대동강구역 청류2군 24 인민반에 사는 영예군인 최재식동무의 집으로 이른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군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옥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2군청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예단위 일꾼인 신현철동무와 삼업성 부원인 정성,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순,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울것이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녀의 소행이 전해질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던가. 매해 명절때는 물론 매달이 문두드리는 소리가 그칠 줄 몰랐고 영예군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진심 목소리가 마음을 후뼀히 해주곤 했다.

지난해 리영옥동무가 뜻하지 않은 일로 몸을 상했을 때에도 이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70여 일동안 친혈육처럼 정성을 기울인 그 고마운 사람들의 소행에 대하여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최재식동무의 집으로 들어서시는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청소년과외교양지도자 조계룡동무와 그의 아내, 대동강구역 청류2군청학교 교장 최희순, 서성구역 삼신초학교 교원 김옥순, 문수구역 김영실, 위경숙동무들과 대동강구역인민보안서 아예단위 일꾼인 김명성동무 비롯한 인민보안원들, 인민부부부 아예단위 일꾼인 홍성숙동무와 종업원들... 그들의 모습에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결한 품모가 아름답게 비쳐왔다.

창문밖에는 정초의 추위가 감돌지만 위대한 태양의 빛날아예 화복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이 땅의 집집마다에선 이렇듯 기쁨과 행복의 웃음꽃이 불날처럼 피어나는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새해를 축하합니다!》

즐거은 새해명절의 나날이 흘러가는 속에 온 나라 집집마다에 기쁨과 행복이 한껏 넘친다.

뜻깊은 명절을 맞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룡수동무의 집으로 제자들이 찾아왔다.

나라의 기둥감으로 역세게 자라도록 손잡아 이끌어주는 고마운 스승에게 제자들이 향기로운 꽃다발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선생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꽃다발을 받는 스승의 눈가에 훌륭한 제자들을 둔 교육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넘친다. 새해의 첫인사를 비롯하여 뜻깊은 명절들과 스승의 생일날이 오면 약속이나 한듯이 꼭꼭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축하의 꽃다발도 안겨주며 선생님의 기대와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학과학생들이

《새해를 축하합니다!》

비록 축하의 인사는 길지 않아도 거기에는 우리 사회에 흐르는 따뜻한 정, 생활의 아름다움 향기가 가득히 넘쳐난다.

명도자의 두리에 한마음뜻으로 굳게 물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발걸음이 되고 부리가 되려는 굳은 각오가 뜨겁게 불타오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보금자리의 평양기계대학 교원 심동수 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명절을 함께 쇠자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있습니다.》

교육자가 찾아오니 그럴만도 하였다. 새해를 맞으며 집안의 웃사람들은 물론 마을의 웃이른들, 스승들을 찾아 새해를 하는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적 습관이었다. 그러나 새해의 아침 심동수동무의 집을 찾은것은 제자형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더니 이웃들이 들어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년간 집에서 명절을 쇠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알고보니 그들은 지난해 양력명절에도 이 가정에서 보내며 우리 마음을 후덕히워했다.

우리는 심동수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살림방들을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깃든 텔레비전수상기며 《세계명작동화집》...

부엌에서는 만발 심선영동무

심동수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세계포장을 수여받은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으로 손주들이 태어나면 주라고 이르시며 안겨주신 《세계명작동화집》의 주인들이 태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심동수, 한은순 부부는 수많은 제자들을 훌륭히 키우 사회에 보탬이 내세웠다. 이때 동맹원구역당위원회와 일꾼들이 방에 들어왔다. 그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년간 집에서 명절을 쇠고싶어 찾아온것이었다.

불현듯 심혜영동무가 하던 말이 들려왔다.

《맞춤 보금자리!》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고향에도 그 품에 안기고싶어하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에서도 가슴후뼀에 느낄수 있었다.

어제 이 가정뿐이라. 온 나라 가정들에 이렇듯 절절한 그리움이 넘쳐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권 우리 인민의 생활은 올해에도 얼마나 번창하고 아름다울것인가.

본사기자 리경일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풍입니다.》

대동강구역 청류2군 24 인민반에 사는 영예군인 최재식동무의 집으로 이른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군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옥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2군청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예단위 일꾼인 신현철동무와 삼업성 부원인 정성,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순,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울것이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녀의 소행이 전해질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던가. 매해 명절때는 물론 매달이 문두드리는 소리가 그칠 줄 몰랐고 영예군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진심 목소리가 마음을 후뼀히 해주곤 했다.

지난해 리영옥동무가 뜻하지 않은 일로 몸을 상했을 때에도 이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70여 일동안 친혈육처럼 정성을 기울인 그 고마운 사람들의 소행에 대하여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최재식동무의 집으로 들어서시는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청소년과외교양지도자 조계룡동무와 그의 아내, 대동강구역 청류2군청학교 교장 최희순, 서성구역 삼신초학교 교원 김옥순, 문수구역 김영실, 위경숙동무들과 대동강구역인민보안서 아예단위 일꾼인 김명성동무 비롯한 인민보안원들, 인민부부부 아예단위 일꾼인 홍성숙동무와 종업원들... 그들의 모습에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결한 품모가 아름답게 비쳐왔다.

창문밖에는 정초의 추위가 감돌지만 위대한 태양의 빛날아예 화복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이 땅의 집집마다에선 이렇듯 기쁨과 행복의 웃음꽃이 불날처럼 피어나는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새해를 축하합니다!》

즐거은 새해명절의 나날이 흘러가는 속에 온 나라 집집마다에 기쁨과 행복이 한껏 넘친다.

뜻깊은 명절을 맞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룡수동무의 집으로 제자들이 찾아왔다.

나라의 기둥감으로 역세게 자라도록 손잡아 이끌어주는 고마운 스승에게 제자들이 향기로운 꽃다발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선생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꽃다발을 받는 스승의 눈가에 훌륭한 제자들을 둔 교육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넘친다. 새해의 첫인사를 비롯하여 뜻깊은 명절들과 스승의 생일날이 오면 약속이나 한듯이 꼭꼭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축하의 꽃다발도 안겨주며 선생님의 기대와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학과학생들이

《새해를 축하합니다!》

비록 축하의 인사는 길지 않아도 거기에는 우리 사회에 흐르는 따뜻한 정, 생활의 아름다움 향기가 가득히 넘쳐난다.

명도자의 두리에 한마음뜻으로 굳게 물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발걸음이 되고 부리가 되려는 굳은 각오가 뜨겁게 불타오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평양 시내 여러곳 참관

우리의 당의 각별한 사랑과 은정속에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새해에도 평양참관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회의참가자들은 위인칭송의 대보물고이며 태양민족의 만년제보인 국가선물관을 참관하였다.

총서관에 들어선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그들은 혁명의 대성인,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 해외동포들, 남녘인민들의 열화같은 경모심이 어려웠던 선물들을 감동속에 돌아보며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 최고사령관부를 누리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였다.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그들은 미래와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충무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

인들의 공원을 관람하고 어머니의 은정속에 건설된 인민야외방수장에서 스케트를 타며 명절을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오늘의 행복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포구마다에 만민의 배고픔소리를 높이 울려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그들은 혁명의 대성인,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 해외동포들, 남녘인민들의 열화같은 경모심이 어려웠던 선물들을 감동속에 돌아보며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 최고사령관부를 누리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였다.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그들은 미래와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충무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그들은 혁명의 대성인,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 해외동포들, 남녘인민들의 열화같은 경모심이 어려웠던 선물들을 감동속에 돌아보며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 최고사령관부를 누리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였다.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그들은 미래와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충무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미술전시회 및 수공예품전람회 여러 나라에서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주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진, 도서, 미술전시회와 로씨야 하바롭스크시 원동미술박람회 등에서 지난해 12월 25일에 개막되었다.

전시회장전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전시회 장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하바롭스크시행정부의 인사들과 대중이 참가하였다.

하바롭스크시 시장 아. 엔. 소폴로브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의 인민공화국 사진, 도서, 미술전시회를 진행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로씨야와 조선은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토는 크지 않지만 자부심이 매우 강한 나라이다.

평화애호적이며 영웅적인 조선인민은 자기가 선택한 길로 확신있게 전진하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신 조선인민은 온갖 난관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전시회는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주, 향일의 녀성 영웅 김경숙동지의 탄생 96주에 즈음하여 브라질, 벨기에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개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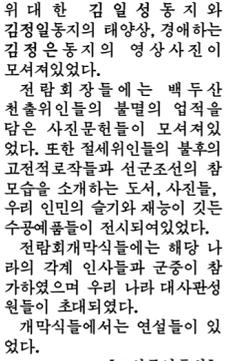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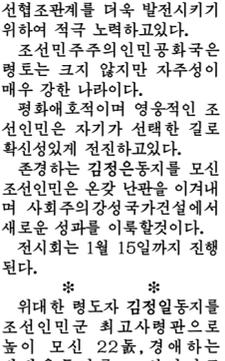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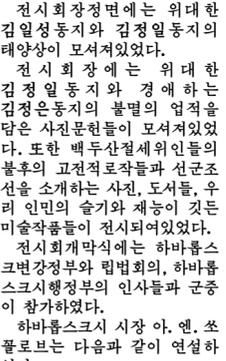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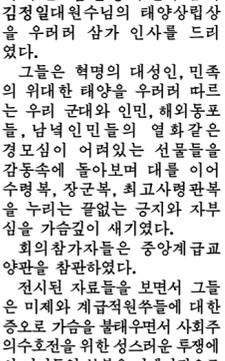
전람회장들의 전경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이 모셔져있었다.

전람회장들에는 백두산 천출원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대중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대사관원들이 초대되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 공연 관람

